

13

항공사령관 한일묵 증장

(1908 - 1972)



항공 사령관 한 일무 중장.

한 일무 선생은 1908년에 8월 12일에 함경남도 함흥시에서 탄생하시었다. 일본 제국주의가 조국을 침범한 후 한 선생의 부모들은 외국에 아들 하나를 데리고 1916년에 원주지방 연해주 보색시예는 구역에 와서 정착하시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는데 어린 아들도 학교에 보내어 공부하게 하였다. 보색시예는 구역은 러시아 땅이라 하지만 두만강 건너 첫 지역인 것만 칠 북한과 지리상으로 강하나가 중간을 막았지만, 땅의 것이 형을 보던가, 보충할 줄 산천이나 기록이 북한과 아주 흡사하다. 때문에 모험에 들어온 식민은 원치않고 보색시예는 구역 어느 곳에 와서 멈추기로 하였다 이 지역은 북한보다

노양이 비록하여 하천에 물고기도 없고 해변강이 다  
가워서 내색이 풍부하였으며 고흥상으로 볼 때 월로나  
수관큰 도시 항구들과 '일찍이 연결되어 사람 살기에는  
아주 편리하였으나, 그 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북  
산계만 골라 "배바가 오로만" 부르는 일본인사들의  
락산이가 보이지 아니하니, "한심태평" 살 길에 들어선 것  
같기로 하였다. 한심생의 부모들은 늘 별히 기뻐한 것은  
자유로운 국경지에 와서 왜놈들의 영향이 없이 독재아들  
을 공부시키는 일이다.

한 선생은 8세 때에 노복교에 입학하여 1920년에  
노복을 나온 다음 노씨에 노 구역 중학교에 노복계학교 시  
에서 1926년에 고종으로 바꿈하게 되었다. 그 후 한 선생은  
농촌에서 큰 공청위원회 지도리에서 청년군 중 등에서 공  
청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유한 지주 집안에서 돌아다니며 고령  
로움을 하였다. 1930년 노복 원에서 농촌정치 협동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한 선생은 협동조합 공청위원  
장, 협동조합 당위원장 일을 조직진행하였다. 1930-1932  
년 사이에는 한 선생이 블라지 워스도코 고령당학교에서 2년  
간 공부한 다음 노씨에 노 구역당 지도원으로 1932-1934년  
까지 일하시고 1944-1946년에는 하바롭스크 공산대학에  
서 2년간 공부하신 다음 1937년까지 계속 구역당 지도원  
으로 일하시었다. 1937년 강제 머주사기에 한 선생은 무르

백 공화국 타슈켄트국 중월북지역에 도착하였다. 한 선생은 3,  
군당위원회의 파견에 의하여 중간 협동조합 당위원회 위  
원장으로 1940년까지 일하시었다.

1941년 2월 15 일에 한일부 선생은 국가안전 위원회  
장노실로 모시라는 편지를 단원부 기관 중위에게 받고  
그 즉시에서 기관은 약 2시간 동안 기다릴터이니 집에  
잠간 가서어서 모스크바로 출장가실 준비를 하여가지고  
사무실에 다시 모라는 것이었다. 어떻게든 4년 이상이나  
일하시던 협동조합 지도부라도 똑 "하게" 언사로 못하고  
사업언제도 별것 없어 2년 한 선생은 그날 저녁으로  
모스크바에 들어가는 기차에 몸을 실고 오쿠야 반 결의  
서 모스크바 까산역에 도착하자 기차 창문 앞  
에 와서 앉으려 주는 기관이 있어 약 20미터까지  
목적지까지 도착해서, 거기가 바로 외국으로 파송하  
는 정찰 일군들을 준비하는 학교였다. 한 선생은 학교라  
하기에 큰 감당도 없고 굉장한 사무실도 없어서 교장이  
나 교무주임 등을 만나 일이나 하려고 독생각으로 준비하  
고 있었으나, 아무런 사무실에도 가지 않고 직권 누수에  
대러다 주면서, 여기에서 식사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  
고, 일드하시라고 하였다. 기관은 도라서 나가면서 세 달이  
넘 9개월 기관이 모실터이니 그 선생께서 지시한 직서를  
받으시라고 하였다.

한 선생은 그 이튿날부터 독방에서 독학을 하면서 과목별  
 단선생들을 만나 과제도 받고 물기도 하였으나 조선사람이라고  
 는 한 명도 만나볼 일도 없었다. 이리하여 몇 번씩 공둥세이나라 하여  
 학생 몇 명 물었는데 가변 전혀 보지 않던 새사람들이더니, 민족  
 도 전부다 다른 나라 민족들이었다. 그들은 소련말도 잘 하지  
 못하는 형편에서 공부하기 아주 어렵어 보였다. 한 선생은 이  
 학교에서 2년간 공부하시고 1943년 초에 원동변강 불라지  
 보쓰도크에 주둔하고 있는 대평양 함대 경찰부에 파견받아  
 가게 되었다. 한일부 선생도 잘 알고 계셨지만 이시기에 하  
 유권은 근방에서 많은 한인 청년들과 또한인 지식인들  
 리들을 모스크바 경찰학교에 불러다가 2년식, 3년식  
 공부시켜 조선지역과 만주지역에 파견하였던 것이 다  
 모스크바 경찰학교는 비밀리에 부치고, 그를 보통 "나라라  
 노브" 학교라 하였다. 학교를 나오기 전, 학습과정에서 나  
 공부를 필한 사람들도 그 학교를 경과한 사람들로 보  
 지도 못하고, 누가 어느 때에 어디로 파견 되었지도 알지  
 못하였다. 그것은 그 파견 계획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었고  
 며, 또 서로 모르게 한 것은 만약 한사람이 체포된다고 하  
 여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기 위해서였다.  
 경찰계획은 대략 대평양 함대 계획, 원동특별 독립군단 제1,  
 제2 전선, 소련공산당-국제공산당 계획, 국제혁명자육성회 계획,

지어는 극세 적십자사 계층까지 정찰사업을 하였으며, 상대방  
 의 병력과 사상동태를 알기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런데 어찌러가  
 지 정찰중에서도 해군정찰이 제일 어렵다고 하여야 맞을것이다. 그것은  
 리체적으로 상"해역보다도 <sup>변</sup>변한 사실이지만, 실지 그것을 체득하고, 다음  
 번 옛날, 예적으로 되었을시 그들의 회고에서 알려진 현실이다. 생각  
 만 하여도 - 잠무함, 해변 정황을 모르면서 근무반도를 타고 그에 접근  
 하리란, 푸꾸간에 끌려들어가는 소와 무엇이 다를것이 있으랴? 이런  
 전후사범은 한일부 선생은 두번이나 - 1944년에, 1945 삼반기에  
 실행하였다. 고향산천이란, 그 땅에서 탄생하여나는 사람에게 결정  
 적 영향을 주는바, 특히 사람의 정신상태, 말씨와 행동, 걸음거리, 지  
 이는 골격과 성대 모소리까지 결정시켜준다. 한일부 선생이 아니고  
 다른 소련 레능, 다름사람 들을 들어 보았더라면 그 눈치바라를 일  
 제의 정찰 앞에서 훑아나오기 어렵었을것이다. 우리는 이런 실제  
 를 많이 알고있다. 기호-골노르에서 파견된 성진태 생신봉남이를  
 실태를 들어보면 - 1941-1945년 사이에 각 대학들에서 약 81명의  
 대학생들이 정찰의무를 받고 조선반도에 들어갔었는데 전부다  
 1개월-3개월 이내로 붙잡혀 일본 형형들의 손에서 죽었는  
 데, 생신태는 2년 동안이나 평양, 원산, 함흥 쪽으로 돌아  
 다니며 자기과업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말미막에 원산부근에서  
 붙잡혀 감옥에 구금 되었다가 1945년 8월 16일에 평양,  
 감옥에서 사형<sup>당</sup>하였다. 그대신 <sup>당</sup>볼타르노 골노르에서 파견되었던

다슈켄은 경제대학 학생 김여필은 체포되자, 신봉남에 대하여 작성한 녹장들을 대어줄 한으로 신봉남이는 붙잡히고, 김여필은 체포되었으나 사형당하지 않고 감옥에서 소련군을 맞아왔었다. 소련군들은 소련말을 멋스럽게 잘하는 적수를 석방하였다고 약 3개월간 총역원으로 활동한 호의옥에서 지내었다. 그러나 1946년 호응씨평양감옥의 전반 비밀물건들이 소련군 정치안전부에 넘어오자 김여필에 대한 모든 사실이 전부다 적발되며, 그는 모스크바에 실려가 군사 재판을 받아 "사형 언도"를 받았으나 당시 소련법은 전후 사형법을 20년 징역으로 고쳐하였기 때문에 사형을 모면하고 감옥에서 옥사하였다. 그것은 적당한 처벌이었다.

한일독선생은 전후 임무를 수행한 다음에는 다시 잠수함의 덕을 한번도 받지 못하고 매번 육로를 리용하여 동만주 지역을 통과하여 다시 소련 국경을 넘어오곤 하였다. 1945년에는 전후 임무 수행후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배에 모르게는 하였으나, 이번에는 잠수함이 어니타 큰 군함에 몰려 타게 되었으며, 군함들은 전후원들로 초만원 되며, 경황 위임을 받아 4갈때에는 12번 죽을 길을 걷는다고 생각하고 혼자 독생광으로 수십로 끼얹지만 이번에는 성수가 나는 것이었다. 어것어(하)로 1945년 8월 8일 저녁이었다. 8월 9일 아침에는 5시쯤에 청진항구에 불바다를 어둡어 놓고 군함에 몰려 갔던 해병대원들께 전부는 각종 무기를 끌어 잡고 군함에서 내의 상륙정에 급속히 몰려 타고 해변으로

연막을 뚫고 구달음치는 것이었다. 한선생도 그 군영 들목에서  
 대대장과 같이 멀리 불빛이 있는 바다역을 바라보며 자중송을  
 준비하여 죽고 그와의 점근을 기대하고 있었다. 상륙병들은 군전  
 후가 없이 시내의 한부분을 횡단하여 청진 뒷산에 모르게 되  
 었다. 백여명이 별반 넘지 않는 해병 육전대의 기본사병은 청  
 진시 전후부대와 대전을 하라는 것이 아사하 해변에 상륙을 성공  
 하고 직후에 길이숨어 후방을 혼동시키면서 다음 기본부대의 당  
 도 될 때까지 그곳을 식우하는 것이 기본이었다. 때론의 청진 상  
 육부대는 같은 날 아침에 노조 국경, 노안 국경을 돌파한 소련군  
 제 25군단 산하 연합부대와 부대들의 북한 후방, 남향, 회령  
 시들을 경관하면서 청진시에 접근하고 있는 것을 한일부 일행의  
 상륙병들은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다. 물론 청진시에나, 린점 라남  
 시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들이 무력을 부응하여 가지고 소련상륙병  
 들을 포위하고, 격멸시켜야 기본전술상 법칙이었는데, 기본병  
 려는 안주에 동원되고 남아지 선병들로 교체된 몇개의 구분대  
 들은 8월 9일 날 아침 5시 소련군 동남공습과 함포사격  
 에 대패당하고 완전히 북바다가 되어 청진시 부근역 대왕  
 고 들은 연기층에서 보이지도 않는 형포란에서, 크지 대왕할  
 힘도 없었던 모양이었다. 한일부 일행 육전대는 25군단  
 육전 연합부대들을 맞이한 다음 다시 상륙병들 걸쳐 군함을 타  
 고 뒷산으로 행차했다. 뒷산에도 벌써 2일전에, 즉 청진과

한날 한시에 소련 해방들에 의하여 적군은 적파되고 시내에는  
 소련군 경무가 조직되어 시내 질서를 유지하는 형편이었다. 그러  
 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아 총선이나 원산 시에서는 시정무  
 부들은 조직되었으나 완전 무결한 평화는 유지되지 않고, 여기 저  
 기에서 쉼사 없이 총소리는 밤낮 들리었다. 더욱 8월 15일이 되  
 자 일본이 완전히 항복하였으므로 조선 36년이란 기나긴 세월  
 의 식민지에서 해방 되었다. 후항해했다는 소리가 들리자 감  
 옥에 있던 수라한 예극자, 국제공산당 출신 공산당원, 조선의  
 유전환 민족예극자의자들이 전체 인민들의 지지하에서 곳곳에  
 서 인민 위원회를 조직하고 나라를 움직이기 위한 초거품을 시작  
 하였다. 이와 병행이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에 조직되었다  
 한일부 선생은 1945년 11월 북해 1946년 1월까지 원산  
 시당 선전 선동부장으로서 일하시었으며, 1946년 1월 말  
 북해 1946년 6월까지 약 반년간 원산시당 위원장으로  
 북조선 분국에 속하여 일하였으며, 다음 북조선 노동당이 조직  
 되자 1946년 7월부터 1949년 1월까지 북조선로  
 동당 강원도 도당 위원장으로 계셨다.

1949년 6월에 김일성은 조선의 무장총일을 준비하  
 여 그대기분으로 인민군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민군대  
 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여서 그의 지로 강북 전쟁을 강화하는  
 길에 들어 섰다 이때에 김일성은 강원도 도당 위원장 한일부

를 조종하여 해군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동쪽 상관이 시작되자 연립군 해병들은 대군함이나 항공모  
 함은 한대도 없어 다만 10여개의 어뢰정들을 가지고 비교적  
 용감하게 후진하여, 주물진 전역에서 이쪽 대군함을 침몰시  
 키면서 김군목, 김철성 두명의 공화국 영웅들을 배설하였다.  
 해병들은 유엔군 대군함들과 맞부딪기까지는 동해바다의 모든  
 섬들을 점령하는 동시에 동해바다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울릉도  
 도 점령하였었다. 그러나 해병들은 유엔군 해병들을 만나게  
 되자 몇개나 많은 어뢰정들을 모조리 파괴당하고 월산까지  
 후퇴한다음 육지에 올라 육군으로 고원, 화산 만포진 등 지나  
 만주에 넘어가게 되었다. 그후 해군 사령부는 있었으나, 전부가  
 새로 조직하기 위하여 해군 군관들을 초선에 공학하여 보내었다.  
 바로 이렇게 해군들은 새로운 준비과정을 경과하는 이대내에 바로  
 1952년 1월말에 항공사령부에 크다란 비상사건이 생겼다 년  
 말에 김일성은 하루 남후된 전후기체를 좀 취세우기 위하여,  
 항공사령관 황련에게 과제를 주되: 여성 비행대를 동원하  
 여 전선 전지도 목적 할점, 야간을 리용하여 김포 비행장에  
 주둔하여 있는 유엔군 항공대와 연천북쪽에 있는 원공룡  
 고들을 포격하여 아군들의 전후사기를 높여면서 적군들에  
 게 타격을 주어 새해설을 잘맞아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전후  
 임무를 수행하여야 할 녀비행대에 장 대선의 비행기가

사리원 근방에 설치하여 놓은 야간비행장에서 끄러고 하다가  
 약 200 미터 밖에 나가 옥수수밭골짜기에 떨어지고 파손  
 되어 다시는 뜰수 없었다. 비행기는 파손되었으나 그에 적대한  
 폭탄들은 폭파되지 않아 불행중 다행이며 비행사는 살았다.

그런데 최고령관 김일성의 명령은 어떻게 한탄말인가?  
 항공사령관 왕권을 중심으로한, 항공사령부 군사위원 김태건,  
 항공사령부 참모장 김원길, 항공부사령관 리활 등 간부들은  
 최고사령관에게 허위보고를 하기로 결정하고, 최고사령관 등지가  
 국선 전후 임무를 성과적으로 실시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들은  
 날 평양신문들은, 또 평양 라디오 방송은 굉장하게 허위 포격을  
 세계에 자랑하였다. 서울의 바빠가 마냥 어상, 서울신문과 방송  
 은 그날밤 적기가 서울상공에 나타난 일도 없었는데 포격은 우  
 른 포격이라고 큰소음 방송을 하였다. 이 때문에 땅에서 (땅에서)  
 이륙하지 못한 대선의 비행사는 칩대에 놓여 앉으면서 식의를  
 전혀 고통했다. 눈치를 취한 보위성 정치안전부 기관들은 달아나기  
 군원을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결과에 허위날조가 증명되자  
 항공사령부 장령들은 전복다 처단을 받았다.

이런 사건의 뒤를 다음 1953년 평월 풍수에 김일성은 항공  
 사령관에 한일부, 군사위원에 최학일, 참모장에 오길두를 임명  
 하였다. 항공사령부에는 큰 폭풍이나 지나간 것 같기도 하였다.

1953년 일년간은 사령부 내 사업들이 잘 수행되지 않았  
 다. 언제든 세 지르자는 새 작풍으로 사업을 조직하려는 법

이요, 하북에는 자기 측근분자들을 끌어당기어다 넣기 좋아하  
 는 법이다. 하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으나 항공부대들은 그후 전  
 후에 별로 참가하지 못하고, 거저 제1방사기사단 비행사들  
 이 배를 같이 1대 원대씩 전후당직은 수행하였다. 조선 인민군  
 항공부대는 제1방사기사단을 제외하고는 전쟁 3년 동안에  
 병풍으로써 자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편습으로 전쟁을 종  
 알 짐었다. 전쟁이 끝나자 중국요동반도 각지역에서 기지를  
 두고 전후에 참가하던 항공부대들은 전후다 북한 지역에 기지를  
 옮겨 왔으며, 전쟁시기에 대강 건설하고 전후훈련에도, 또  
 부분적으로 전후에도 참가하던 구성비행장, 용성비행장 평양  
 기림리 비행장들은 대대적으로 개건하여야 하였으며 새  
 로운 기체들을 많이 구입하여 들이쳐야 했다. 한일육사령  
 이 새로 사령관으로 들어서자, 전후조직보다 모든 새로 준  
 비하여, 개건하여야 했다. 전쟁 3년 사이에 무엇이 나 다  
 파괴된 나라에 새로운 기술기체들을 구입하여 대단히 어렵었다.  
 특별히 비행기관 매년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비행기  
 들도 도덕적 과일을 당하여 각 전후부대들의 비행기  
 들을 종량 새것으로 바꾸어야 하였다. 한일육사령  
 관은 이런 현점에서 일하시기에 아주 곤란하였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한일육 사령관은 기본 전후부대인 제1사 비  
 행기 - 방사기 소령제 - 미그 15형을, 미그 17형으로

교체하고, 낮은 비고-15 형은, 그때까지 발란개비가 들어가는 전후기 라-10 으로 장비하였던 제2 비행사단에 넘겨 주는 등 여러가지 우완으로, 전후 실적은 보존하면서 점차적으로 전후 부기를 개량하는 방법으로 비행성원과 기술근무원 성원들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 한일무사령관은 막대한 것을 헤치 않고 밤낮 노력하여 인민군 항공 부대들을 강병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은 하였으나, 패싸움에 눈에 쌍눈을 켜고, 아무런 공로도, 현신성도, 나라의 충신도 인정하지 않고 과거 발란개산 김일성의 역사를 잘 아는 사람은 몽땅 책임적 일에서 축출하고 자기 세습제도를 꾸리는 형편에서 한일무사령관도, 병종사령관 직에서 태백태날 재간이 없었으며, 너희들의 비상한 지도적 재능을 소유하고서도 제대되었다.



전후 훈련시에 래도하신 변죽보키상에게 훈련 과정에 대하여 보고하고 계시는 한일무사령관.

간부 조동에 후원이 있는 김일성은 한일투사령관을 조동하여  
직급상으로 볼 때에 좀 더 높은 것처럼 보이면서, 사실상 아무런  
직접적인 명령은 할수없는 인종보위성 부상으로 "승급"식했다.  
이것도 임시적이였다. 한일투사령관은 항공에서 4와 부상  
직무에 1958년 1월 부터 1958년 10월까지 계시다  
가 다시 전차 조동 되어 몽고공화국 대사관 가게 되  
였다. 아명호는 사상권도 침결운동은 결과적으로 근 12년간  
정치적 핵심역을 하던 즉 - 동당위원장 3년, 해군사령관  
4년, 항공사령관 4년 한일투 선생의 정치적 생명을 끄어  
서 인제는 아무일도 안하고 평안히 남잠이나 잔수있는 몽고공화국  
대사로 내리 끌렸다. 생기 발발하고 용감하던 한일투 선생은  
조국을 등지고 멀리 떠나 몽고 벌판에 가서 유복민 생활이나  
만보게 하였으나 전쟁 3년간을 초려온 부상당한 곳은 아무일  
시장이 딱딱 맞으며, 목구멍이 막히는 같은 역경을 체험하  
면서 이곳에서 살기 시작하였다. 신신히 일할수 있는 사  
람을 평안히 취하고 보며야도 타사 병은 제질로 생기는 모양  
이였다. 한일투 선생은 그제야 비로써 어렸어 바르 김일성이 "배  
려"하는것을 알게되였으며, 작기를 몽고평 유복민의 귀신어  
되라고 "어버이 - 김일성이 옥천적 테레를" 배틀어 준것을 알  
게되자, 죽을바에는 자식들과 친척들이 살고있으며, 사람들이 자유  
롭게 움직이 자기위사를 활동할수있는 소련땅에 가서 죽을것이지

왜 몽고양의 귀성이되나, 자기와 생사를 같이하여 북강한조국권  
 설을 위하여 불후로력하던 사람들의 죄가 느리고 있으며, 눈물에  
 한숨으로 유행사리하고 있는 북한에 다시 들어가 여생을 보낼생각  
 온전 ~~희~~ 없었다. 대대물에 한일부 선생은 53 세에 몸에 병이  
 있다는것을 기본 이유로 달아 김일성에게 청원-편지를  
 써 보내고 조선 대사관에 문건들을 제출하여 귀국 수속을  
 한 다음 1961년 10월 24일에 모스크바에 도착하였다  
 모스크바에 도착한 한일부 선생은 조선공산당 중앙위원  
 회 총비서인 흐루쇼프에게 청원을 드렸던바 그 청원내  
 용은 대개 아래와 같았다: 나는 1941년 하반기에 등원  
 하여 조선공산당을 통하여 국제공산당 집행 위원회와 관할  
 하에서 움직이게 되었던바 이때부터 나의 운명은 당과  
 굳게 연결되었다. 그 당시 내가 걸어온 길은 전복다 너러조  
 선 동포들과 함께 조선을 해방하기 위한 지하 투쟁이였다  
 1945년 8월에 일제를부터 조선을 해방하는 투쟁에  
 직접 참가하였고, 조선이 해방된 첫날부터 나는 조선공  
 산당 노동당 사업에 참가하였던바 시장선전부장으로서부터  
 시작하여 시장지침장, 도당 위원장 직책에서 일하였으며,  
 다음 1949년 부터 4년동안 해군 사령관, 4년동안 항공사  
 령관 직책을 겸하여 왔으며 시기에는 몽고인민공화국  
 대사 직책에서 3년간 일하고 현재는 몸에 병이 나서  
 일할수 없어 귀국하였사오니 앞으로의 저의 생활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을 바랍니다.

이상 한일투 - 수로 1961년 11월 1일.

이상의 편지를 써서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조직부에 전달하자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한일투 선생은 조직부장의 초청으로 그

를 방문한다음 한선생의 년금 문제, 주택문제 부인의 취직문

제 아이들의 공부하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던바, 년금은 당

간부들의 개별적 년금생으로 비문 받고, 사택은 모스크바 중심

적 위치라고 할수있는 소련 산업농업전략회 주변 말레세예프 카

지하철 역전에서 멀리 않은 곳에 배정받아 한선생은 여성

을 그 사택에서 경제적으로 행복하게 지내었으나 조국에 대

한 불만과 동일에 대한 염원등 근심으로 고민하시다가 1972

년 8월 10 일에 세상을 떠났다. 한선생은 부인 경시나와

아들 하나 딸형제를 곁에 얹어놓고 눈을 감았다

부인 경시나는 1914년 12월 9 일생으로 원주병강초씨

예구역 도취끼업소로 출생하여, 거기에서 1936년에 한

선생을 만나 출가하신후 한선생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한선생을 항상 따라 다니며 다정하게 살면서 한선생

의 건강을 감사하였다. 한선생이 비밀공작대원으로 조선

해방의 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불독로결함시인 1941-1945년

간에는 경시나 양은 한선생이당위원장으로 공작하던 협동조합의

부위원장으로서 공작하시었다 조국에서 돌아오신 이후 경시나

사모님은 가정부원으로 자손들을 돌보아주시며 계시다가

1992년 7월 15일에 모스크바에서 찍히셨다.



1965년에 모스크바에서 찍은 한일목 선생의 가족사진

앞줄에 오른쪽으로 부터: 한일목 선생, 손자 안드레이, 손녀 엘레나,  
정시나이다 사모님, 뒤줄에 왼쪽으로 부터: 최아파나씨 사위, 한세나 장녀, 한말라 티너  
한 림아 메누리, 한 켄지 장남.

현재 한일목 선생의 장남 한 켄지는 러시아 경제 베레스트로  
이가 생활의 흐름에 적응하여 자기 가족을 데리고 러시아어  
어머니가 살고 있던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으며 조선민주주의  
국립선악에 열심히 참가하면서 한국어, 한국 문화 프로그램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 한일목 선생의 사위 최아파나씨는  
조선민주주의 평화 통일 전국선 사무원장으로 국립선악  
사업을 국수권 전역에서 열심히 조직하고 있다.

모스크바에서, 1994년 10월 21일.